고은 불교대하소설

107

누리는 낙(樂)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생성·유지·소멸속에 영구히 이어지는 道이니…

"야마천에 함께 가지 않으려오"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할…"

불이와 합두가 내려다보던 저 아래의 세상은 그들이 살던 세상인 남쪽 섬부주였다. 먼 곳은 슬픔을 낳는다. 그 슬픔을 특히 합두는 피하고싶지 않았다. 도리천의 천상에도 그런 슬픔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만을 내려다본 것만은 아니다. 수미산 자체의 어마어마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고난 시력은 그런 수미산까지도 걸림지 않고 투시함으로써 섬부주 말고도 수미 4주의 세군데 큰 땅들도 두루 살필 수 있었다.

아니 그들은 그런 수미 4주가 있는 금륜(金輪) 전체를 겹겹이 두르고 있는 일곱 산줄기와 여덟 바다까지도 살폈던 것이다. 그 산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부분만 8만유순이고 바다속에 잠겨있는 것이 8만유순인데 그 물 속의 보이지 않는 8만유순의 산도 슬쩍 보이는 것이었다.

금륜은 혹은 지륜(地輪)이라 한다. 말하자면 금륜이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곳은 어떤 우주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채와 같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 산이 금륜 위의 물줄를 싸고 있는 철위산(鐵圍山)이다. 수미 4주의 가장 밖의 가장자리를 맡고 있는데 수미산을 중심으로 변방을 지키는 산인 셈이다.

새 한마리, 짐승 한마리는 커녕 한 줌의 흙이나 돌 바위 따위도 없는 무쇠로 이루어진 솜막하는 산이다. 그 안쪽의 지변산(地邊山)에서도 36만3천2백88유순이나 되어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더구나 인간이 살고있는 섬부주에서는 약 3억7만유순이나 되어 그 철위산이 어디에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 세계는 이런 무시무시한 산으로 일단 울을 치고 있는 셈이었다. 만약 합두가 그런 철위산까지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면 그동안 누렸던 슬픔의 행복 따위는 대번에 녹아버렸을 것이다.

그대신 형언할 길 없는 분노가 치솟아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철위산으로부터 바로 눈길을 옮긴 다음 섬부주 북쪽 거기에 있는 구로주를 보고 있었다.

그곳 뿐이 아니라 다른 3주 모두 저마다 본주(本洲)보다는 작은 2개의 중주(中洲)와 5백개의 소주(小洲)가 있다.

그 지형(地形)은 서로 달라 남주인 섬부주는 북쪽이 넓은데 북주인 구로주는 거의 네모꼴이었다. 사람들의 수명은 1천세인데 이것도 섬부주의 최대 8만세와 최소 10세 차이의 규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두는 불이가 불쑥 꺼낸 불만이 떠올랐다.

"어쩌자고… 뭘 하겠다고 이 세계는 이렇게 크단 말인가. 이 세계는 도무지 허황해서… 쯔쯔."

아직도 불이에게는 섬부주의 인간생활에 젖은 잔재가 남아 있음인가. 아니 그런 것이라면 합두에게도 남아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녀도 한 마디 내뱉은 적이 있었다.

"철위산보다 철위산 안의 그 짠물바다는 파도조차 워낙 거칠어서… 그보다는 여섯번째 바다의 향기 넘치는 바다(香水海)를 내려다 볼 때는 이곳의 내 코에까지 향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은 새삼스럽게 함께 깨달은 것이 있다.

금륜의 대지(大地)와 그 아래의 80만유순의 높이로 된 수륜(水輪)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래로 더 커다란 풍륜 1백60만유순의 높이에 이르러서는 다만 눈앞이 아찔할 따름이었다.

그런데도 그 풍륜까지가 물질계로 된 세계이고 그 아래로는 허허망망한 공륜(空輪)인데 그 공륜조차도 허공계의 입문(入門)이 아니던가.

"아아."

"아아."

그들은 도리천에서도 필요한 감탄사가 나왔다.

그런 뒤 저 아래 구로주를 눈여겨보았다. 그곳 인간이나 짐승들은 다 섬부주의 그것에 견주어질 수 없게 컸다. 아마도 섬부주의 어느 시기에 살고 있었던 공룡들과 같은 크기일 터이다.

소리도 우렁찼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를 낸 소리는 동쪽 거인국 승신주에까지 들려서 승신주 거인들의 잠을 깨운 나머지 승신주 거인들의 화를 돋구어 구로주 쪽으로 무서운 불바람을 불어댄 적도 있었다.

아니 구로주 일대는 언제나 그곳 사람들의 큰 소리와 그 메아리들이 서로 엉겨서 언제나 천둥소리나 지진이 땅속을 달려가는 것 같은 음향으로 가득하였다. 그 구로주를 둘러싼 바다는 비록 짙은 향기를 내뿜고는 있으나 그 파도소리는 다른 세상의 인간에게는 귀의 고막이 뚫릴 정도로 거센 것이었다.

천녀(天女)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합두가 슬슬 졸음이 왔으므로 더이상 그런 구로주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불이가 보라빛 비단구름자락 속의 그녀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안아서 그녀의 숙소로 갔다.

천녀들의 방은 실로 청정하였다.

너무 청정하다시피해서 비릿한 냄새가 날 정도였다.

불이가 그곳을 떠나려하자 합두가 졸음을 쫓아내고 눈을 떴다.

"벌써 가려는가요? 좀 있어도 돼요."

"……."

"어머나… 우리 불이님이 이 천상에 올라와서도 음양을 차별하는 중생노릇이니… 어여쁘셔라."

"……."

"다섯 음(音)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의 천상음은 바로 이곳 처녀들이 태어날 때의 소리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 다섯음이나 실컷 몸에 담고 건너가시구려. 그대 불이님이여."

불이는 어느덧 합두의 손길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거의 제 정신을 놓아야 하였다. 천상에서의 천녀가 지닌 관능은 사바세계 섬부주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지극한 것이었다.

"차라리 눈 멀어라… 차라리 천개의 눈 다 멀어라. 도리천 선견성 한 가운데 계시는 제석천의 천개 눈이 멀어버리면 이 천상도 암흑세상이 되리라. 하늘 속의 지옥이라니…."

이런 넋두리가 입 안에서만 굴러나오다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잠기고 마는 것이었다. 끝내 불이는 합두의 몸 안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긴채 눈을 감았다.

"그렇지… 지난 생(生)일 때 돈황 막고굴 공부의 틈에 들은 것이 있지… 저 서역의 사막 족속들에게는 하늘속에 지옥이 있고 땅속 깊이 천당이 있다 하였지… 하늘에는 언제나 뜨거운 해가 있고 무서운 모래바람 투성이니 땅속이야말로 천당이었겠지… 그렇다면 이 도리천은 무슨 연유로 천당이 되었단 말인가?"

불이가 깨어난 것은 어느새 남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였다.

도리천 복판 제석천이 주재하고 있는 선견성 주위에는 언제나 노라면(嫩羅綿)이라는 7색 무지개빛이 서린 구름의 용단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 구름 용단의 한 자락이 잠을 깬 불이의 몸도 휘감고 있었다.

천상은 애욕이나 애욕을 초월하는 일이나 한가지로 진행됨으로써 굳이 누가 누구와의 접촉만을 갈망하는 일 따위는 거의 없다. 워낙 그런 색욕의 업보가 짙은 천남 천녀들의 그것이야 따를 수 없으나 여느 천신들은 늘 그런 열락과 쾌락 가운데 잠겨있고 늘 그런 쾌락 이상의 법열(法悅)에 젖어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저 아래 섬부주의 인간세계가 애욕에 불타거나 애욕으로 모진 병이 들어 죽거나 하는 처절함이 천상에서는 크게 결핍되었다. 애욕의 끄트머리에 겨우 바람 한 자락을 배설하는 일도 지상의 그 일에 견주면 싱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럼에도 하늘나라의 그 용단과 같은 구름에 휘감긴 음양의 심신이 풍기고 있는 높은 관능은 지상의 농도와는 또다른 격조이기까지 한 것이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태풍이나 폭풍이 되는 일이란 없다. 도리천의 어느 나라에서도 항상 훈훈한 미풍이 쉬지 않고 불었다.

이런 한 세계의 편안함을 벗어나서 여러 세계의 대천세계 자체야말로 우주의 커다란 운동에 의해서 바람도 엄청나서 지상의 태풍 따위에 비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를 감쪽같이 없애버리는 캄캄한 미궁 속의 기습으로 한 세계의 멸망과 다른 한 세계의 생성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겠다. 우주는 하나의 걷잡을 수 없는 운동, 끝없는 운동 그것이었다.

그런 우주란 한없는 공간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에 의해서 생성하고 유지하고 차츰 부서지고 그리하여 소멸되는 과정에서도 그 운동 자체는 단 한번도 그런 되풀이 속에 빠져들지 않는 우주의 도(道)로서 영구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우주 자체를 저만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안다. 마치 합두와 불이가 그들이 살았던 전전생의 세상을 그윽히 내려보며 그 멀고 먼 세상에 대한 한 가락 슬픔을 머금고 있는 그 무의 지와도 같은 것인지 모른다.

"야마천에 올라가고 싶다 했지요? 불이님."

"그렇다오. 그대도 함께 가지 않으려오?"

합두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보일듯 말듯한 사래질을 나타냈다.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누구 하나가 아니라 누구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저 아래 섬부주에서 올 사람들 말인가?"

"어쩌면 그들일지도 모르고 그들이 아닐지도 모른다오. … 기다리는 일이 참다운 도인줄 이제야 알았다오… 아니 그대처럼 가고 싶은 곳, 가야할 곳이 있는 것이야말로 도의 본마음이기도 하지만…."

"합두님 그래도 천상에 태어나더니 입이 수많은 꽃들처럼 잘도 피어나 그 향기로운 말들을 잘 토해내는구려."

"이런 일도 저 지상의 인간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오. 어떤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세상이 어떻게 세상일 수 있는가하고 하늘나라 따위를 부정하기 일쑤일 것이오."

"그러다가 이 곳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터이지. 어느 세상은 다른 세상, 다른 나라를 모르는 일로 그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므로…."

이같은 천상 도리천에서 사는 천신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일로써의 지아발견을 넘어 지아의 발명(發明)과 같은 일이 거의 없는 정적(靜的)인 평화일 따름이다. 그래서 불이는 떠나고 싶어하는 것인가.

그림·조향숙

易理로 본
小說
三國志
(전3권)
『삼국지』와 『주역을』 동시에 읽는다.
삶의 지혜와 계획을 이 책 속에서 구하라
백운곡 著/신국판/전3권/값 각 5,000원

秘傳 四柱精說 白豐觀 著/신국판/값 5,000원
家庭作名法 金柏溪 著/신국판/값 3,500원
주역비전 백운곡 編著/신국판/값 5,000원
토정비법 백운곡 編著/신국판/값 7,000원
人生60진 秘法 백운곡 編著/신국판/값 7,000원
明堂全書 徐善繼·徐善述 著/韓松溪 譯/값 5,500원
韓國의 風水 村山智順 著/鄭銀鎬 譯/값 12,000원
風水地理學 里程表 金東奎 著/값 10,000원
전생을 봐 드립니다 안동민 著/신국판/값 4,500원
이 여자의 運命 이키 교쿠쇼 著/전후수 譯/값 4,500원
운명으로 본 人生 金謙東 著/신국판/값 7,000원

명문당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17-8
TEL:733-3039·734-4798 FAX:734-9209

運命小說
사주 궁합 살성 이야기
(전3권)
이야기로 풀어보는
신비의 사주 궁합 살성 이야기
吳熙奎 著/신국판/전3권/값 각 3,500원

절찬 판매중
총공급처:명문당
TEL 733-3039.733-4748

新命理學 安成雄 著/신국판/값 10,000원
周易作名法 이상옥 著/신국판/값 10,000원
戊己解 金明濟 著/신국판/값 15,000원
四柱運命學의 精說 金謙東 著/값 9,000원
九宮秘訣 김상옥 著/신국판/값 9,000원
占卜術入門 全泰樹 編譯/신국판/값 7,000원
風水地理學 人子須知 金東奎 譯/값 35,000원
易學原理와 命理講義 曺誠佑 著/값 9,000원
傳統 風水地理 林魏寗 編著/신국판/값 7,000원
紫微斗數 韓重洙 著/신국판/값 6,000원
人生三八四爻 이해수 編著/신국판/값 5,000원
韓國地理總覽 池昌龍 著/신국판/값 10,000원

출판역사 70년 전통의 명문당

方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한의학의 名著 '方'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現代人의 健康秘典 (전 12권)
漢醫學을 집대성한 현대인의 가정상비서
한의학의 놀라운 효과와 처방을 영역별·체계적으로 묶어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이 책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자각증상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증상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가정상비의 종합 漢方書이다.
특히 한방의 장점인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自己診斷과 治療法 (Ⅰ) 症狀別 漢方療法
2 自己診斷과 治療法 (Ⅱ) 成人病과 民間療法
3 自己診斷과 治療法 (Ⅲ) 成人病과 民間療法
4 經絡과 經穴·鍼灸
5 丹·生活體操
6 스포츠 漢方과 救急處置法
7 漢方食餌療法
8 漢方料理
9 漢方回春長壽秘典
10 性生活과 漢方
11 한글 對譯 證脈·方藥合編
12 生藥圖鑑

金斗元 編著/신국판/값 각 10,000원

明文堂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8
TEL : 733-3039 FAX : 734-9209